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42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7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허종식 · 최기상  
김동아 · 이연희 · 이훈기  
강득구 · 박 정 · 박해철  
전진숙 · 박희승 · 장종태  
오세희 · 윤후덕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 · 비속,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 · 검안서 ·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,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.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· 검안

서·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 
것임(안 제17조제1항).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환자(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,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)”를 “환자 [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,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]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17조(진단서 등)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(檢案)한 의사[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(檢屍)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], 치과의사,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·검안서·증명서를 작성하여 <u>환자(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,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) 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(檢屍)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(검안서에 한한다)에게 교부하지 못한다. 다만,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</u>	제17조(진단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자[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,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]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	-----
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	-----
으며,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	-----
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·치과	-----
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	-----
사유로 진단서·검안서 또는	-----
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	-----
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	-----
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	-----
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	-----
내줄 수 있다.	-----
② ~ ⑤ (생략)	--.
	② ~ ⑤ (현행과 같음)